

시니어 순모임(6월)

인도 : 순장
대표기도 : 말은이

- 📍 찬 양 _____ 찬송가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_____ 다같이
- 📍 대표기도 _____ 말은이
- 📍 감사제목 나누기 _____ 다같이
(한 달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감사의 내용을 나누어 봅니다)
- 📍 기도제목 나누기 _____ 다같이
(본인의 기도제목을 한 가지씩 나누어 봅니다)
- 📍 말씀 나누기 _____ 말은이
- 📍 합심기도 _____ 다같이
 1. 여름 방학기간 동안 모든 시니어들이 건강하게 하소서
 2. 여름 단기선교 및 주일학교 VBS, 청소년, 청년 수련회를 위하여
- 📍 광고 _____ 말은이
- 📍 주기도문 _____ 다같이

알려드립니다.

1. 무더운 여름 모두 건강하게 신실하게 순모임 방학을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2. 여름 단기선교와 주일학교 VBS, 청소년 수련회, 청년부 수련회가 6월에 있습니다.
복음이 확장되어지고 다음세대들이 신실한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기도해주세요.
3. 교역자 동정 : 최정호 목사가 6월 19일부터 7월 8일까지 휴가입니다.
기도가 필요하거나 응급한 상태가 생기면 서주원 목사(703-200-3688) 또는 순장에게 연락주시기를 바랍니다.

(통일 397) 주 믿는 사람 일어나 357
분투와 승리 Encamped along the hills of light
J. H. Yates, 1891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우리의 믿음이라 (요일 5:4)
SANKEY: 8.6.8.6.D.REF.
I. D. Sankey, 1891

조금 빠르게

쉬운 기타코드(capo=3rd) Eb→C Bb→G F7→D Ab→F

하나님이 사랑하고 싶은 사람, 욥기 1:1-12절,

욥은 하나님이 사탄에게까지 사랑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8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욥

1절,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입니다. 온전하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죄가 하나도 없는 완벽한 것을 말하지는 않는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진실로 선하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모든 사람이 육체로 변해갈 때 하나님 말씀에 묵묵히 순종한 노아처럼 욥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견고한 믿음으로 살아간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정직한 사람이라는 말은 악을 떠나 하나님을 따라간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욥은 아브라함과 같은 시대에 살던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율법도 없던 시대, 비주류의 욥 같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건하게 살았던 욥을 하나님은 참 좋아하셨습니다.

▶ 경건한 가정으로 세우는 욥

욥의 경건한 삶은 개인을 넘어 가족에게까지 흐릅니다. **4절,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세 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욥은 자녀들을 서로 생일 때마다 각기 집으로 초청하여 잔치를 엽니다. 욥의 자녀들은 서로 우애 좋은 형제, 자매였음을 짐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음 구절에서 우리는 욥이 어떤 사람인지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절,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욥은 잔치가 끝나면 혹시라도 영적으로 나태할까 자녀들을 불러 놓고 성결하게 하는 아버지였습니다. 욥은 자녀들이 마음으

로라도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아침에 일어나면 한사람 한사람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자녀들의 신앙교육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사실 한두 명의 자녀도 신앙으로 책임지고 키우기가 쉽지 않는데 10명의 자녀를 하나 하나씩 영적으로 돌아본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욥에게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많은 재산을 잘 물려줘서 대대로 잘 살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욥의 관심사는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들로 잘 자라나는 것이었습니다. 욥은 이것을 위해 매일 아침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성경은 욥의 이런 삶을 참 멋지게 표현합니다.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 고난을 통해 세워진 욥

하나님이 허락하자마자 욥의 가정에 고난의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스바 사람이 종들을 다 죽이고 소와 나귀들을 다 빼앗아 갔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양과 종들을 다 태워 죽였습니다. 갈대아 사람이 낙타들을 다 빼앗고 종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열 자녀들이 만아들 집에서 음식 먹다가 대풍에 집이 무너져 다 죽습니다. 소설에서도 일어나지 않을 일이 욥에게 일어났습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고난을 만난 욥은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눈을 뜨게 됩니다. **5-6,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뵈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들이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지금까지 욥은 하나님을 자신의 틀 안에 가두어 두고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생각, 세상의 모든 상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결국 욥에게 자신이 누군지 더 깊이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고난이 주는 신비입니다. 고난은 참 아픈 일입니다. 그러나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누군지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고난이 없다면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고난을 만나는 것도 감사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고난의 시간은 아픈 시간이지만 바로 그때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서 주님이 힘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만나 주실 것입니다.